

美·이스라엘, 對 이란 공격...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이란 핵재건 시도”...‘장대한 분노’ 작전 15시간만 미사일 기지·軍지휘시설 타격...세계 각국들 “상황 주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단행. 이란 이슬람 신정 체제의 정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불구대천’의 적대 관계를 이어온 중동의 대국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는 평화와 혼돈의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4시40분(미 동부시간)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시 15분, 이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15시간 여만이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께 수도 테헤란 시내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발과 함께 굵은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이곳은 하메네이의 집무실 부근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군은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요인들에 대한 이른바 ‘참수 작전’(정밀 타격을 통한 요인 제거 작전)을 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하메네이의 주거지를 파괴하고, 혁명수비대 지휘관들과 고위 핵 관리들을 죽였다”며 “수천개 목표물을 더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지휘 통제 시설과 이란 방공 체계,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군용 비행장 등을 우선적으로 타격했다고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장대한 분노’라고 명명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격 때 작전 명은 ‘한밤의 망치’였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사자의 포효’라고 명명했다. 이는 작년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할 때 붙인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에 연계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조금 전 이란 내 중대 전투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하고 “핵 야망을 포기할 모든 기회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더는 이를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산업과 해군 파괴 등을 이번 작전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적 해법이 최우선이라며 이란과 핵 협상을 이어오던

서도 중동에 대규모 군사력을 전개하며 대 이란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은 이날 6일 8개월만에 핵 협상을 재개하고 스위스와 오만 등에서 지난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이어왔으나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 31개주 가운데 24개주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소 201명이 사망하고 747명이 부상했다고 이란 적신월사가 밝혔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행위라고 규탄하고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혁명수비대는 약 20시간 뒤 반격했으나 이번엔 약 1시간여 만에 즉각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개시를 알리면서, 그리고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거듭 이란을 향해 신정체제 전복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국민들을 향해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고 말했다. 하메네이 사망을 발표하며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고지도자가 제거됐다는 점을 들어 이란 군경을 향해선 “지금은 면책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죽을만 하게 될 것”이라며 투항을 종용했다.



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엔뉴스

이란 ‘3인 지도자’ 구성...최고지도자 임시 대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사법부 수장·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이란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함에 따라 헌법에 따라 3인 체제의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국영 IRNA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NA통신은 최고지도자 유고 시 권한 대행을 규정한 헌법 111조에 따라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령, 폴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등 3명이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해 과도기에 최고지도자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한다고 전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최측근 인사이자 고문 모하마드 모흐베르 전 수석부

통령도 이 매체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헌법에 따라 이란 헌법기구 전문가위원회는 되도록 신속히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란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구성된 임시 지도자위원회보다는 ‘하메네이의 오른팔’로까지 불렸던 모흐베르 전 부통령과, 현재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알리 라라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전시 상황에서 실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엔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